

제 218 호

연중 제 3 주일

1977. 1. 23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098)

□ 칼론 □



주님의 은총의 해에 해방을

전 대 복 신 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후 갈릴래아에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칭찬을 받으셨고 그야말로 “갈릴래아의 봄철”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맞서는 무리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향에서만은 존경을 받으시지 못하였다. 그래도 그분은 갈릴래아에서 나자렛으로 돌아오셔서 규칙적으로 회당에 다니셨을 것으로 표현되는 “언제나 그러시듯”이라는 어귀를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루가는 예수자신이 이사야야예언의 완성이라하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눈먼 자에게 구원을 주는 자라 선포한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요한의 외침과는 다르다. 요한은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멸망을 선언하여 듣는 이들이 무서워 떨게했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은 그 분이 장차 성취하실 전도사업의 축도인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셨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충만케하시고, 정욕과 탐욕적인 사술에 매여있는 이들을 당신의 절대적 권위로 쫓아내 주신다. 다른 말로 오늘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주님의 은총의 해>-이것은 구원사적 시대로 보면 예수시대를 말한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오늘 주님의 은총의 해가 선포된 것이다. 구약(레위 25)에 50년만에 있는 대 해방의 경축년, 오늘의 예수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은총의 때에 우리는 대 해방을 해야겠다. 모든 것으로 부터.

온갖 허황된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 의지를 주님의 뜻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자유스러울 것이다. 대 해방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선행을 하거나 덕행을 쌓는 일도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오시기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지우는 일, 자신을 비우는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질 때, 하느님이 우리를 점유하실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사도 바오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은총의 해>가 선포된 이때에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큰가”(로마 5)를 체험해 보자.

(임실 전주교회 주임신부)



죄송합니다.

며칠전에 교구 신부님들을 모시고 여러 교구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교통편이 일정하지 않아 고속 버스, 직행버스, 기차를 차례에 따라 이용하는 강행군이었다.

안동에서는 아침 7시 40분 특급을 탔다. 안동에서 원주를 가본적이 없는데다가 경상도와 충청도를 지나 강원도를 찾는 산골의 기차여행은 크나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안동을 출발한 20여분 후부터 일어났다.

소위 특급열차가 그 추운날 스팀을 제대로 넣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차안의 공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이중창을 비집고 들어오는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한쪽 무릎과 팔뚝을 냉동시키기 시작했다.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잠시후 여객전문의 사과 방송이 시작되었다. -“승객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난방차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추위는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다.

결국 제천역에서야 새로운 난방차를 구해서 얼마 남지 않은 원주역까지 따뜻하게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별로 추위를 느끼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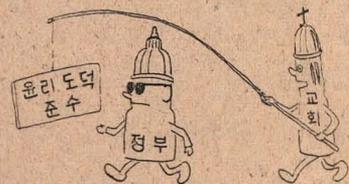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난방차 고장으로 떨었으면서도 그 추위를 그리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은가?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스럽게도 잘못을 일버무리려 드는가? 아니,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으시대는가?

새해에는 제발 그러지 말자. 그래야 참다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숲 정 이 산책



교회의 사명과 책임



人 間 의 존 엄 과 교 회 (1)

지 학 순 주 교

이 내용은 지난 1월 17일 낮에 있었던 <聖心·海星 교직원 연수회>와, 밤에 열렸던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신 지학순 주교님의 강론이다.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신구교 합동으로 열리는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는 김재덕 주교님을 비롯한 신부님들, 목사님들, 성공회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신구교 평신도들, 모두 250여명이 참가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일치의 모습을 보였다.

1. 서 론

“모든 사람은 날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8년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로 선포된 “인권선언”의 제1조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이때에는 “인권주간”이 설정되고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투적인 담화가 나오고 형식적인 행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당국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적 인권선언”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인데 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권리를 보호하는 자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권을 개발해 가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체의 자유권도 없으며, 언론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절대다수의 민중은 언제나 궁핍과 공포아래 떨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는 당국으로부터 배급받고 있으며, 신교의 자유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가 넘쳐흘러 방종속에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인권주간을 맞아 당국은 “자유와 인권은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자만이 참다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희들이 자유와 인권을 지켜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인권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즉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포한 뉴앙스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인권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교회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상합니다.

창세기 9장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하느님)의 피를 흘릴것이니 이는 하느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하신 말씀은 인간의 존귀함을 너무나 잘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제

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고 받드는 모범을 보이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다른 것들 위에 두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또한 항상 당신과 결합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 이외에 어떠한 누구도 어떤 조직도 감히 인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말에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대주교님이 신살바 추기경께서 자기나라 군사정권에게 이 사상을 강력히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귀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신장시키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모범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리주며 눈먼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케 함”(루가 4, 18-19)에 있으며, “바로 저 짐에 놀려 신음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마태 18, 10)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와같은 행적은 인권이 무엇에 의하여 유린되고 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조직적인 힘 즉 부당한 권력과 그와 결합된 구조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수난사는 그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때에 사람들이 법정에서 풀려가 재판받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총독들 임금들앞에 서게 되리라는 마르코 복음의 예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인권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토록 시련에 찬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자장판·믹사(OSTAR) 대아 전기 전복대리검
약탕기(맥스웰 사이폰) 전주 대리검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

□ 양지쪽 □

○이웃 생각, 어디에 까지...○



감 사 드 립 니 다.

“성탄 위문금품 보내주신 교구 신부님들과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병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군중 신부님이 주교님께 보낸 편지의 한 귀절이다. 지난 성탄절에 교구내 본당과 여러 단체들이 보내주신 성탄 선물에 감사한다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의 극히 적은 정성이 장병들에게 그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니 그저 고맙고 부끄러울 뿐이다.

“장병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부끄럽게도 전주 교구내 6단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의 장병들에 대한 정성(?)은 겨우 현금으로 165,700원이었고, 위문대 109점이었다.

우리 교구 사제 네 분(고정훈 신부—육군, 성민호 신부—공군, 이수현 신부—육군, 김병운 신부—육군)이 현재 군중 신부라는 어려운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신다. 앞으로, 금년에 다시 세 분이 또 군중 신부로 입대하신다. 자기 본당 살림이 우선적이고 어려울겠지만 전신을 찾아다니는 군중 사목에도 크나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참고로 각 본당과 제 단체에서 보내주신 성탄 위문금품을 소개한다.
금산 13,300원, 고산 6,400원, 황등 18,000원, 전동 20,000원, 대야 10,000원과 위문대 1점, 화산 10,000원, 대진 신용 협동조합 10,000원, 성실학교 20,000원과 위문대 5점, 중앙 성심부녀회 10,000원, 중동 10,000원, 복자 14,500원, 노송동 6,000원, 전주 성모병원 10,500원, 무주 7,000원, 삼례 위문대 21점, 창인동 위문대 43점, 순창 위문대 1점, 해성학교 위문대 38점. 이것이 그 전부이다.

덧붙여서 지난번 수해때 보내주신 성금 내역도 소개해본다. 총액 373,095원 가운데 광주 교구청에서 200,000원, 또 광주교구인 나주본당에서 16,000원, 제주교구 중앙본당에서 50,000원을 보내주었으니, 본교구에서 나온 성금은 겨우 107,095원 뿐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작년에 교구 사목방침이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되자」 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읍 16,000원, 황등 15,000원, 노송동 10,000원, 함열 12,000원, 대야 6,500원, 남원 8,060원, 돌음동 16,000원, 화산 10,000원, 주현동 13,535원. 이상이 본교구에서 걸려진 성금의 전부이다.

여하튼 성금을 보내준 본당이나 제 단체에는 그저 감사로울 뿐이다.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그 껍질을 벗어야 할 때가 아닌가?
<가장 보잘 것 없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요심이 (182) 김병운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교버)

원아모집, 원아모집, 원아모집

자격 : 만 5세~만 6세 어린이

성 체 유 치 원

주소 : 전주시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화 : ②8408, ②3231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 심 당 한 약 방

이 상 범(벨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4 5 4 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크

미 미 제 과 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 민 주(가타리나)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많이 찾아 주세요.

◇ 후지칼라 특약점

7 7 7 칼라 사장

◇ 정읍극장 앞 ☎ 4 2 7 4 번
오 경 근(바오로)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 느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 6 2 1 9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댕)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

1. **술정이 편집실 직원 공개 채용** (24일<월>오후 1시, 교구청 사무국) 희망자는 24일 12시 40분까지 접수바람
 ① 간단한 지참 및 면접 있음
 ② 이미 이력서 냈던 분들에게 개별 통지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 **일치 주간 간담회** (25일<화> 오후 7시 반, 교구청 회의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여성 제3차 꾸르실료** (가톨릭 센터, 선배 꾸르실리스트의 참석과 빨랑가 바람)
 □ 개회식...25일<화> 오후 5시, □ 마나냐 28일<금> 오전 4시 반, □ 폐회식...28일<금> 오후 6시
4. **농민회 정기총회**, 2월 7~8일로 연기
5.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본당·공소 합동)
 ① 패...2월 20일 오후 2시~24일, ② 곳...가톨릭 센터, ③ 참가자격...주일학교 교리교사 및 후보자
6. **금주의 방송 안내**: 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5분 「사색의 오솔길」, 김동준 신부 방송)

(중양)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심 부녀회 임원 보선: 회장-강 아네스, 부회장-김누갈다.
2. 미사 참례시 성경책, 성가책, 기도서는 꼭 지참합니다.
3. 청년 합창단 연습시간 변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4. 예비자 교리 2월 6일부터 시작: 해당되시는 분은 등록 바랍니다.
5. 유아세례: 1월 마지막 금요일(28일)에는 유아세례 없음
6. **지난주 봉헌금 100,44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홍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예비자 1단계 예식: 2월 2일(수) ※모든 예비자(통신 교리 예비자 포함)는 1월 29일(토) 오후 3시~5시까지 변담하시기 바랍니다.
3. 전례 위원회의: 1월 26일(수) 오후 7시
4. 재속 형제회 청년 피정: 1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5. **축결혼** 1월 29일(토) 오후 2시
 황성연 군, 진영숙(유리안나)양
6. **지난주 봉헌금 41,7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학생회 임원개편: 회장-박현상, 부회장-박길상, 총무-조찬화
2. 미사 시간을 잊으셨나요? ...시간을 꼭 지킵시다.
3. **금주 성당 신축 헌금**: 김형천(20,000원) 주제 20,000원, 누계 5,575,500원
4. **지난주 봉헌금 43,47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우회합** 25일<10반>태평동 신 방지거 반장, 흥안나 26일<11반>진복동 김 마리아 반장, 도토리골 반회장 맥에서 27일<12반>진복동 서용련 반장, 임한권 28일<5반>교사동 정 마리테레사 반회장 맥에서
2. **학생회 제11회 정기총회**: 다음주일 <30일>공식 미사후 ※학생(신입생 포함)전원 참석 바람, 신구 회장단 교체
3. **신용 협동 조합 정기 총회**: 1월 30일 11시 30분
 ◎전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통장지참)
4.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일 공식 미사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미사후

5. **지난주 봉헌금 30,07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축! 영세 31명...구이 광곡리 공소 영세자 일동
2. □축! 꾸리실리스트<이정빈(시몬), 김종태(가스탈)> 탄생...
3. 영세 예비자를 1월 30일까지 안내바람
4. 레지오 마리에 Pr 및 예비자 단합대회 1월 30일 (주일) 공식 미사후, L·M회의실에서
5. **지난주 봉헌금 25,440원** ◎감사 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기윤
 사도 회장 김유석

1. 예비자 등록: 매 미사후 ※교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2. 어린이 첫 영성체: 매일 오전 10시
3. 전국 성서 등지회: 1월 29일~2월 1일, 가톨릭 센터
4. 중·고등학생 등반대회: 1월 24일 오전 8시반 장소-모악산, 준비-도시락, 왕복 교통비
5. 방ziger 삼회: 다음주(30일)월례회 및 허원석
6. **지난주 봉헌금 97,322원**

(술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봉사분과 위원장 (강용재씨)가정 형편으로 사임-전준선씨 보선
2. 미수된 교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공성사를 못보신 분은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4. **반상회 일정**: 26일(수)-진복 2동 3반~5반(오후 8시, 사제관)
5. **중·고등학생 등반** 1월 25일 예정일: 공식 미사후 모여주세요
6. **누갈다 부녀회 탄생!** ...16일 탄생된 누갈다 부녀회에 모두가 임합니다. 회장-이요안나방지거, 부회장-박 헤레나, 함모니카, 총무-박 테레사, 송 루시아, 황안나, 서기-강 안나, 박 헤레나, 회계-김가타리나, 간사-정 세시리아, 황 가타리나
 ◎수고 하시겠습니까.
7. **반장 임명**: 금암동 1반-이선숙(첼마), 2반-김정숙(세시리아)
8. **지난주 봉헌금 19,515원** ◎감사 합니다.